

“대화체 이해 시스템에서의 격조사 생략현상에 대한 한 기술적 고찰”

홍 민표 (명지대학교 영어과)

“A Descriptive Review on Korean Case Markers and
their Deletion in On-Going Dialogues”

Minpyo Hong (English Dept., Myong Ji University)

본고는 우리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축약 및 생략 현상을 언어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실제 대화체에서 나타나는 격조사 생략현상에 대한 관찰결과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화체 이해 시스템 구현을 위한 생략된 격조사 복원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를 위해 녹취한 약 한시간 분량의 2인 혹은 3인의 자연스런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전화대화들을 전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대화에서 실현되거나 생략된 격조사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기존의 연구 및 관찰에 경험적 타당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의 분석을 대화이해 시스템에 구현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격조사가 생략된 명사구들이 나타나는 환경을 통사 및 담화적 특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대화이해 시스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격조사 생략현상 연구 및 이를 토대로 한 명사구와 용언 사이의 문법적 의미적 관계 규명을 위한 향후 연구에서 어휘부의 확장 필요성을 논한다.

1. 서론

대화체 문장의 큰 특성 중 하나가 생략 및 축약이 빈번하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¹⁾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 및 이를 토대로 한 생략/축약 현상의 언어학적 규명 및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복원알고리즘의 구축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 또한 깊이 공감되어 왔고 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특히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체언과 용언 사이의 구문 및 의미 관계가 격조사라고 불리는 형태소에 의해 표시되고 있는 언어에서는, 격조사들이 대화체 문장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첫단계라 할 수 있는 구문분석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도 주지하는 바이다. 본고는 이러한 격조사들이 실제 대화체 문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 생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녹취자료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에 바탕을 두고 향후 대화체 이해 시스템에서 격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한국어 대화 자료

우선 연구를 위한 한국어 대화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 순수 구어언어에 의존하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의사소통 대화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TV대담프로그램에서처럼,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의 표정이나 제스처 등의 초언어요소(paralinguistic factors)에 의존하는 보통 대화와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순수언어적 수단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화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언어현상을 분석하는데에는 그 연구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통방송 및 KBS, SBS (FM)에서 실시하는 라디오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처의 소프트과학 특장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전화상담 프로그램 중 약 한시간 분량의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하고 이들 대화에서 나타나는 생략 및 축약 현상을 분석했다. 전사에 이용된 방법은 우선 Levinson (1983)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 소리나는대로 전사를 했다. 여기에는 대화 참여자들의 억양이나 간투사 등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기했다. 이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비단 생략 현상에 대한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행 이론이나 기타 대화진행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자전사(leral transcription) 방식과 아울러, 더 나아가 당면과제인 생략 및 축약 현상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어법에 맞게 다시 대화를 가공하는 방식(broad transcription)도 취했다. 이는 지나치게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한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 표준방식으로 가공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 대화 데이터를 분석해 왔고, 또 앞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녹취, 전사한 대화 내용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복의상 관련 대화 (교통방송 “9595쇼” 주부전문인 클럽회장 대담 (KBS1라디오 “라디오24시”))
- 자녀양육 관련대화 (교통방송 “9595쇼” 한방상담 (CBS라디오))
- 소비자 문제 연구모임 상담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 교통시설 상담 (교통방송 “서울, 서울, 서울”)
- 창업상담 (CBS “토요초대석”)
- 교통법률 상담 (교통방송 “서울, 서울, 서울”)
- 자동차 정비 상담 (“ ”)
- 생활법률 상담 (“ ”)

3. 생략된 격조사의 유형분류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명사구가 문장 용언에 대해 갖는 최소한의 문법 및 의미 기능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로 격조사를 명사구 바로 뒤에 표시하는데,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국어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연구의 방향은 주로 왜 이러한 격조사들이

생략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고, 그에 따라 자연 격조사 생략이 갖는 구문-의미론적 차별성에 관심이 깊었다.²⁾ 또한, 격조사라고 불리우는 언어단위들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예를 들어, 단어 수준의 형태소인지, 아니면 구 수준인지, 혹은 첨사 particle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³⁾ 그러나, 실제 대화체 문장에서 어떤 환경하에서 격조사의 생략이 허용되는지, 혹은 생략된 격조사를 어떤 규칙에 의해 복원해야 할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체 이해 시스템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점은 이보다는 오히려 격조사가 생략된 채로 명사구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해당 용언과의 문법적, 의미적 관계를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지이다. 즉 보통 격조사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명사구의 경우, 그 명사구가 용언에 대해 갖는 문법기능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스템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격조사의 종류에 따라 문법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를 인식할 수 있지만, 격조사가 생략된 채 명사구가 사용되면, 그 명사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대화 이해 시스템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격조사 생략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략된 격조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사된 실제 대화 자료 상에 나타난 명사구를 격조사 실현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해 보고, 과연 격조사 생략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녹취한 대화 전체에 나타난 명사구의 수는 약 2,000여개 (정확히 말하면 1,989개)로 계수되었

2 사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생략’이라는 용어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바는 아니다. ‘생략’이란 원래 무언가가 있다가 없어졌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부 국어학자들(예를 들어 안병희 1966, 김광해 1981)은 부정격 혹은 제로형 등의 이름으로 아예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것 자체도 국어에 일어나는 일종의 곡용이라고 보기도 한다.

3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채희락 (1997)을 참고하라.

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1> 구가 격조사 없이도 용언과의 문법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격조사별 생략비율>

	1. 실현된 수		2. 보조사로만 실현된 수		3. 격조사가 잘못 실현된 수		4. 생략된 수		5. 전체	6. 생략 비율 (2+4)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주격		376	67.6%	135	24.3%	4	0.7%	41	7.4%	556	176	31.7%
	2중주어	12	36.4%	19	57.6%	0	0%	2	6.1%	33	21	63.7%
	보격	22	55%	8	20%	0	0%	10	2.5%	40	18	45%
대격		358	72.5%	62	12.6%	6	1.2%	68	13.8%	494	130	26.4%
	사역목적어	1	100%	0	0%	0	0%	0	0%	1	0	0%
	여격	14	73.7%	2	10.5%	2	10.5%	1	5.3%	19	3	15.8%
관형격(속격)	67	39.2%	2	1.2%	1	0.6%	101	59.1%	171	103	60.3%	
처소	190	82.3%	14	6.1%	8	3.5%	19	8.2%	231	33	14.3%	
시간	95	73.1%	15	11.5%	1	0.8%	19	14.6%	130	34	26.1%	
비교/동등/합계/자격	64	81%	1	1.3%	6	7.6%	8	10.1%	79	9	11.4%	
서술격	136	91.3%	0	0%	1	0.7%	12	8.1%	149	12	8.1%	
기타 복합 보조사	73	84.9%	8	9.3%	1	1.2%	4	4.7%	86	12	14%	
전체	1,408	70.8%	266	13.4%	30	1.5%	285	14.3%	1,989	551	27.7%	

전체 1,989개의 명사구 중에서 격조사가 실현되어 그 문법관계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명사구는 1,408개로 약 70%가 격조사와 함께 쓰이고 있음이 보여졌다. 그리고 격조사가 완전히 생략된 경우는 285개로 약 14%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에는 '-는' '-도' '-만' 등과 같이 보조사라고 불리는 특수조사들이 있어, 주어 및 목적어를 표시하는 필수격조사('을/를, 이/가')를 탈락시키고 명사구에 부가되어 그 문법관계를 파악할 때 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색깔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도)

이처럼 보조사와 함께 쓰여 있어 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명사구는 정확히 266개로서, 약 13%의 명사구가 이 부류에 해당 하는 것으로 계수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런 대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약 27%에 해당하는 명사

특기할만한 현상은 <표 1>에 보인 듯이, 일부 명사구의 경우 전후 문맥관계로 보아 격조사가 잘못 실현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도 약 1.5%가량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 가. 색동의 십이년 전에, 십년전에는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었어요.
- 나. 우리 소비자는 이게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 다. 이 차량들이 지장의 덜 받는다는 말씀 같은데...

이처럼 분명히 격조사가 한국어 화자의 언어적 관과 일치하지 않게 실현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 문장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쉽게 그 문법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대화이해 시스템 구현

을 전제로 한 격조사 생략 현상 연구에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또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관형격 조사인데, 이는 한국어 격조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생략되는 형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관형격조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환경 171개의 명사구 중에서 실현된 경우는 67개 (39%), 생략된 경우는 101개 (59%)로 오히려 생략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에서 복합명사를 생성하는 방법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관형격 조사의 생략현상은 복합명사 인식문제와 결부시켜 따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 이처럼 격조사 생략 현상을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드러난 한가지 관찰 중 하나는 시간격조사의 생략인데, 이는 지금까지 격조사의 생략이 주로 용언에 의해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되거나 의미역(thematic role) 할당에 필요한 필수격(주격, 목적격)에 국한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관찰에 어긋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다음의 예에서 시간격조사의 생략을 볼 수 있다.

- (3) 가. 창립총회 날 한 400여명 모였습니다.
 나. 호적을 그때 제대로 못때어 봐가지고
 요번에 때어 보니까
 다. 사계절 다 입는 그런 옷
 라. 현금이 적을 때는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게 좀 괜찮습니까?

이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실현되어야 하는 조사들이 어떤 형태소이든지 간에, 혹은 과연 그 위치에 격조사가 복원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당분간 미루어 놓고, 우선 그 분포를 볼 때, <표1>에 보이고 있듯이 우선 주격이나 목적격조사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국어학계의 관찰에서는 필수격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격조사의 생략이 자유롭고, 비필수적인 경우에는 그 조사의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시간격조사는 필수격조사와 그 생략 빈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비필수논항(혹은 부가논항)이라 할 수

있는 처소격이나 여격 등 비필수격조사들보다 훨씬 빈번하게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130여개의 시간관계 명사구 중에서 격조사 없이 쓰인 명사구는 34개로서 26%의 생략 비율을 보였다. 처소격의 생략 비율이 14%, 여격의 경우 15%로 나타나는 생략빈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보여졌다.

4. 격조사 생략 및 실현의 구조적 환경

이처럼 한국어 대화체에서 격조사들이 생략되는 현상을 통사구조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해 특히 필수격조사들이 생략된 환경을 용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다. 우선 주격조사의 생략 및 실현 환경을 분류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2. 주격조사 생략환경>

	생략	실현	보조사	계
술어인접	37	218	46	301
구성분개입	12	130	60	202
절성분개입	1	22	17	40
기타 (동격)	3	11	4	18
계	53	381	127	561

주격조사의 생략환경을 통사적으로 분류한 결과 주어 명사구와 용언이 바로 인접해 있을 때 주격조사의 생략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가. 그렇죠, 나이 들 때까지는 입으실 수가 없죠.
 나. 창립총회 날 한 400여명 모였었습니다.
 다. 어, 딱 결혼식 끝나고 돌아오는데, 차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이는 기존의 연구(예를 들면 김창현, 서정연, 김길창 1992)에서 이미 관찰되어 온 사항으로 비단 주격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격조사의 경우에도 이 관찰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사구와 용언 사이에 낱말 한 개가 끼어 있을 때 주격조사의 생략이 비교적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가. 나머지 회원분들 처음 시작할 때, 주위반응이 괜찮았습니까?
 나. 네, 인제 모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다. 애기 하나 있는데 아빠가 데려갔었어요.
 라. 근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주어와 술어 사이에 나타나는 단어는 품사적으로 볼 때 주로 부사성 단어('이렇게', '그대로', '어디', '한 달 정도')이고, 또 체언의 성격을 갖는 단어들 중에는 거의 모두 양화사 혹은 수사들

로 나타났다. 두 단어 이상의 성분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단 한번의 예외('아까 언급한 것처럼'의 경우에서와 같이 삽입절 parenthetical insertion에 해당하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문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단어수 자체로는 꽤 긴 삽입절이 사용되었음에도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 (6) 그리고 요즘 조금 전에 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치열한 경쟁사회고 또 정보화 사회고요.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목적격조사가 생략되거나 실현된 환경을 분류한 결과 주격조사와 비슷한 관찰을 할 수 있었다. 다음은 목적격조사의 생략환경별 분류를 보이는 표이다.

<표3. 목적격조사 생략환경>

	생략	실현	보조사	계
술어인접	49	253	33	335
구성분개입	8	82	20	110
절성분개입	0	1	3	4
기타(도치, 동격)	6	7	1	14
계	63	343	57	463

목적격조사의 경우에도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용언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한해 목적격조사의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7) 가. 한복 만드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 선릉 먹은 사람도 있어요.
 다. 국도에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라. 주식회사 인터컴의 xxx사장 모셨습니다.
 마. 별틀상단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나 양화사, 혹은 정도부사들이 목적어와 술어 사이에 끼어있을 때에는 드물게 목적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으로 관찰 되었지만, 절성분이 개입된 구문에서는 목적격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 (8) 가.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혹시 오일 변속기 같은 거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다. 나이 많이 먹었어요.
 라. 그렇다면 이거 제대로 안하면은 직무유기네요, 네?
 마. 그것은 아마 한구간 더 지나가지고 유턴해서 올라올 수 있는, ...

주격조사 생략에서와 비슷하게 동격명사구들에

는 격조사가 쉽게 생략되고 있다는 것도 다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 (9) 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캠 페인, 아주 많이 할 겁니다.
 나. 교통량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 여 진, 여러 가지 감안해서 ...

여격조사의 경우에도 주격 및 목적격조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즉, 술어와 인접한 여격명사구만이 격조사의 도움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들 격조사 생략 환경을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존의 관찰이 확인되었다. 우선, 이익섭, 임홍빈 (1983), 권재일(1989) 등에서 지적되었듯이 어휘적 기능보다 순수 문법적 기능이 강한 조사일수록 생략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소유격의 경우 생략비율이 60%, 보격은 45%, 주격은 31%, 목적격은 26%, 시간격은 26%, 여격은 16%, 처소격은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교적 어휘적 기능을 강하게 포함하는 격조사들, 예를 들어 비교, 동등, 자격등을 나타내는 격조사들은 생략이 훨씬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생략빈도가 실현빈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소유격조사의 경우, 앞에 지적했듯이 복합명사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연구하여 이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용언과의 인접성이다. 용언과 인접하고 있는 명사구의 격조사가 비교적 쉽게 생략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생략이 일어나는 주격조사 중에서 용언과 인접한 경우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목적격조사의 경우에는 7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구문이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양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남순 (1988)에서 지적되었듯이, 격조사가 생략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생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하게 복원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의 경우,

- (10) 회사[] 다니는 친구가

명사구 '회사'의 격조사로 복원될 수 있는 형태소는 '-를' '-에'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로' 등으로 복원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예문은 앞으로 대화 이해 시스템에서 격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

4. 결론: 대화 이해 시스템에서의 격조사 처리 - 복원 대 무시

이처럼 격조사 생략현상을 실제 대화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찰한 결과 대화 이해시스템에서 생략된 격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연구의 초점을 생략된 격조사를 복원해 낼 수 있는 일반화된 규칙을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니면 격조사의 존재자체를 무시하고 구문분석을 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해결 단서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화이해 시스템에서는 격조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명사구와 용언사이의 의미적 혹은 문법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기재를 개발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격조사 자체는 무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격조사가 없이도 명사구가 용언에 대해 갖는 문법적, 의미적 관계를 대부분의 경우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제의 초점이 격조사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술어의 성격에 있다는 것을 항변해 주고 있다. 즉, 격조사는 일종의 수단일 뿐이고 중요한 단서는 어휘부에서 용언과 그 논항 명사구의 의미표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대화체에서는 격조사가 잘못 쓰여 있는 경우가 가끔 발견되지만, 그 잘못 쓰인 격조사 때문에 문법관계 파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한국어 화자가 격조사에만 의존하여 구문관계를 파악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전혀 구문분석 및 의미처리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셋째, 격조사의 형태와 그 문법적 기능과의 사이가 일대일의 대응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중 주어 혹은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두 개의 명사구가 동시에 주격 혹은 목적격 조사로 복원된다고 해도, 그 두 격조사가 동시에 주어, 혹은 목적어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처소격조사

나 시간격조사의 경우 그 형태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다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도 굳이 격조사를 복원하지 않고도 구문분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앞서 지적했듯이 격조사의 생략은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원은 다방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게는 생략된 격조사를 문맥을 통해 복원해 내는 일이 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격조사로 복원해야 할 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같은 다방적 복원가능성은 물론 격조사와 그 문법기능사이의 다양한 상관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시스템구현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는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고 본다. 형태상으로 볼 때 격조사가 생략된 것이 분명한 체언을 놓고 모국어화자라 할지라도 과연 어느 격조사로 복원해야 할지 혹은 일정한 격조사로 복원했다 해도 그 격조사가 과연 올바른 복원형태인지 알 수 없다면, 시스템에게는 더욱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격조사를 무시하는 이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격조사 자체의 의미 혹은 기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고 믿기 어려운 만큼, 그 격조사가 문법관계 표현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의 의미 및 용언의 의미사이의 관계에 의해 문법관계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관계 자체를 포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부의 표상을 풍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어휘부에서 머리명사어 및 용언의 의미특성을 풍부하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용언의 논항구조, 의미역틀, 그리고 선택제약, 하위범주화 등의 통사 및 의미 특성을 일일이 나열해 주고, 논항구조 내의 각 논항이 요구하는 의미자질이 머리 명사구의 의미자질과 동일하면 둘 사이의 구문관계 해석을 허용하고 해석이 완료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소격이나 시간격조사들까지도 비교적 빈번하게 생략되는 것을 포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논항뿐만 아니라 수의적 논항까지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언의 어휘부 의미표상에 논항구조 뿐만 아니라 사건구조까지도 표시할 수 있

는 어휘부를 장착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재일 (1989) “조사의 성격과 그 생략현상에 대한 한 기술 방법” 어학연구 25:1, 129-139.
- 김광해 (1981) “‘의’의 의미”,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논문.
- 김창현, 서정연, 김길창 (1992) “한국어 대화체 문장에서 조사 생략시 구문관계 해석,” 제2회 인공지능 신경망 및 퍼지 시스템 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283-290.
- 안병희 (1966) “부정격의 정립을 위하여”, 동아문화 6.
- 이남순 (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표지 생략, 탑 출판사.
- 이익섭, 임홍빈 (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채희락 (1996) “한국어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 위어들’ 언어와 언어학 22, 한국외국어대학교논문집.
- 채희락 (1997) “한국어 ‘조사’의 형태-통사론적 특성,” 한국언어정보학회 (1997.6.7) 발표문.
-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홍민표

(449-728) 경기도 용인시 남동 산 38-2

명지대학교 영어과

Tel.: (0335) 30-6268

Fax: (0335) 30-6262

e-mail: mphong@wh.myongji.ac.kr